

언약의 피

말씀: 마가복음 14:1-26

요절: 마가복음 14: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예수님께 대한 종교지도자들과 가롯유다와 한 여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가롯유다는 이 일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건만 그 효력은 조금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1-11)

1,2절을 보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에는 자칫 잘못하면 민란이 날까 염려하여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예기치 않은 제안(14:10-11)을 받아 일정을 바꾸었고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계계와 가롯 유다의 배반까지도 쓰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과거 나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초대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 정식과 함께 비프스테이크, 스파게티, 간풍기, 라조기, 팔보채, 탕수육, 마지막으로 야채와 과일샐러드 등 풍성한 음식이 가득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풍성한 진수성찬으로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b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눅 7:38절에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일 것이다, 또는 일곱 귀신 들렸던 나움받은 마리아 일 것이다 등등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갑자기 향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존귀한 손님들을 초청하면 머리에 기름(감람유) 몇 방울씩 붓는 일은 호의와 예우를 표하는 행동으로 유대인들의 식사에서는 흔한 습관이었습니다.(눅7:44-46)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값비싼 나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오늘날 3천만원 ~ 5천만원 정도 값

이 나가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처럼 값진 향유를 한꺼번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자 어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날 저녁 식사도 자신이 대접하고 싶었는데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먼저 선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인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옥합을 깨서 드리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 옥합은 미래에 결혼을 위해서 고이고이 간직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반쯤 부어 드리든지, 10%, 20% 정도 부분적으로 드리지, 아니면 바닥에 비닐이라도 깔고 드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왕창 깨뜨려서 부어 드린 것이 좀 무모해 보입니다. 좀 물어보고 하지 여인이 너무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들은 여인의 진심을 허비로 보았습니다. waste,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행동 속에 담긴 순수한 진심과 주님께 대한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머리에서 뚝뚝 떨어져 내리는 향유 값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구 아까워라. 저 향유를 팔아서 우리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텐데. 몇 년치 생활비는 걱정 없을텐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허비해 버렸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제자들의 책망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향유부는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폐지와 빈 깡통을 모아온 할머니가 수백만원을 장학금으로 내어 놓는 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번 말씀에서 단팔죽을 팔아서 모아온 돈 12억을 기부한 할머니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그런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7,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모른체해야 한다거나 무관심을 정당화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나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는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이틀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기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음이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여유 있을 때 주님 섬기겠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청년의 힘과 에너지가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버스 지난 다음 손 들어도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은 크게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유 부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여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인의 향유는 십자가 제단에 드러질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향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채찍에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려짐으로 저주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를 다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습니까?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아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마2:11). 그래도 그들은 박사들이었고, 엘리트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타이틀도, 지위도, 넉넉한 물질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의 옥합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역사를 이루는데 큰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역사를 섬길 때 말없이 영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헌신적으로 동역해 주는 목자님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됩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잠언2:13). 예수님도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오늘 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들이 많지 않은데 이 여인의 행동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일회적인 헌신을 영원한 기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기억하리라’ 는 말씀을 그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교회에도 임마리아, 박마리아 사모님들이 계시고, 더 많은 마리아들이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조마리아, 이마리아, 남마리아 등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나의 한 번의 삶이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허무함 속에 사라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향기가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복음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 드러질 때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중한 생명의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질 때 영원한 향기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물질, 시간, 장래의 꿈과 계획. 이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어 드립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댓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쏟아 부어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사가인 라토렛(K. S. Latourette)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제단에 진심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다”

10-11절에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민중들을 이끌고 로마를 쫓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회계 담당자였던 유다는 그 나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을 칭찬했을 때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경우 돈과 지위에 대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고자 예수님을 종교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마가는 이런 유다와 마리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욱 사랑한다면 가롯유다처럼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II. 최후의 유월절 만찬(12-26)

12절을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흠없는 1년된 어린 양을 희생하여 가족 단위로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가족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길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반자 유다를 의식하여 정확하게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방향만 지시했습니다(13-1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심기 위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눅22:15).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향으로 유월절을 예비하였습니다.

17-21절은 유다의 배반을 안타까와 하시며 끝까지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유다가 겪을 재앙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만큼 죄의 대가는 무섭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은 후 캄캄한 거리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요 13:30).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계속 하시면서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데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심으로 바로가 두손 두발 다 들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땅에 살고 있었기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도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갔습니다. pass over. 유월(逾越)한 것입니다. 그들 대신 양들이 죽어 피를 흘려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린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 천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속죄양이 되어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추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믿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우는 진정한 유월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정한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떡을 떼어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에는 누룩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교병을 떼어서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성경에 보면, break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살을 떼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5:4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요5:51)”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이 깨어지는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혹시 KBS TV “강연 100도씨” 라는 프로그램을 아신가요? 지금은 중방했습니다. 그 중 ‘세번째 삶’ 이라는 편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이재철씨는 초등학교때 축구를 하고 들어와서 목이 말라

음료수를 들이켰는데 음료수가 아니라 신나였다고 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씨는 신장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13살 때 어머니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신장 하나를 떼어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씨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몸이 좋아지자 마음도 무뎌지고 별 생각없이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술, 담배, 회식문화에 젖어 들었습니다. 결국 15년 후에 또 다시 신장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기증자로 나선 분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을 받기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 후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것을 예견하시고 건강한 신장을 떼어 주기 위해서 술도 끊으시고, 등산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면서 자신의 몸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건강한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서. 마침내 이씨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수술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오른쪽에는 어머니의 신장을, 왼쪽에는 아버지의 신장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강연 말미에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강연의 제목이 세 번째 삶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첫 번째 삶, 어머니 신장을 이식 받았을 때 두 번째 삶, 아버지 신장을 이식 받았을 때 세 번째 삶. 그는 콩팥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세 번째 삶을 살게 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은혜의 콩팥’ ‘언약의 콩팥’ 이라고 할까요? 아나운서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자식에게 신장을 하나씩 떼어서 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부모님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체 일부까지도 기꺼이 떼어서 내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합니다. 로마서 5: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자녀처럼 이쁘고, 귀여울 때, 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요, 원수일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가장 추한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언약의 표증’ 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콩팥 한쪽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새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힘과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기증받아도 세월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떼어주고 싶어도 한 개 이상 떼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날마다 떼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늘의 만사를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스피릿이 넘치고 거룩하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수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어린애들이 밥을 안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를 않습니다. 병에도 잘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살을 떼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내안에 들어와서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병이 걸리지 않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귀한 살을 떼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잔을 부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3,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는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서 그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나의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양이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로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한번 물어 볼까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구 언약의 효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새 언약의 효력이 강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새 언약의 효력이 강합니다. 히브리서 9:13,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주홍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효력이 있습니다.(사1:18).

주님은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을 쳐 주십니다. 견고한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언약식을 합니다.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예물을 교환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 예물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출장갔을 때도 그 결혼반지를 보면서 ‘신랑이 나만을 생각하겠지? 여보~ 빨리 돌아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부부들은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야단스럽게 맹세하고 언약했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딴 마음을 품습니다. 인간의 언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피를 조금 흘려서 ‘내가 00를 사랑한다’ 혈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피를 조금만 흘려도 얼마나 아릅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 체해서 헛기를 내리기 위해 손가락을 바늘로 따서 피만 흘려도 엄청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늘이 아니라 그 큰 대못에 손과 발이 찢려서 돌아가심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어찌보면 부부관계보다 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생명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8:35-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사단이 나를 아무리 송사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피로써 언약을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모든 사단의 송사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부수어 뜨리시고, 피를 쏟아 언약을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 나온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약은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으셨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께 나의 진심을 부어드림으로써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차원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은 얼마나 빈약한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드린 작은 진심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로서 주님과 우리의 언약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감격과 기쁨이 더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